

3모로 보는 <보기> 범주 잡기.

문학 <보기>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특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점을 제시해주는 <보기>의 경우,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25년 시행 3월 모의고사의 <보기>를 통해, 어떻게 지문을 읽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끝내고 슬슬 잊어가고 있을 시험지이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난해한 현대소설의 <보기>를 통해 범주 설정 연습을 해봅시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 < 보기 > —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이에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작적인 충동은 노동에 대한 지겨움, 무의미성에 대한 저항에 해당합니다.

- A=노동에 대한 지겨움, 무의미성에 대한 저항 ○
- B=노동에 대한 지겨움, 무의미성에 대한 저항 X
-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

이렇게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선지를 분석해 봅시다.

①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1.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2. 그 인식의 결과로 '발작적인 충동 (A)'을 보였는지.
3. '발작적인 충동'이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B)된 것인지.

이렇게 3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선지를 빠르게 털어내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보기>에 기반한 선지내 모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작적인 충동 (A)'을 보였다면, 이는 '발작적인 충동'이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B)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①번 선지의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문과 <보기>의 연결이 있습니다.

지문을 잠깐 봅시다.

지문 근거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이는 <보기>의 범주 B에 해당합니다.

A에 해당하는 '발작적인 충동'을 참아 냈기에 B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저 노동에 순응한 노동 수단으로 전락(B)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발작적인 충동'을 참아 냈기에

①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①번 선지의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기>를 처리할 때, 범주를 잡고 간다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